

#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 2 월호



## 봄을 위한 준비

입춘도 지났다. 계절은 아직 겨울이지만 봄이 곧 살금 살금 다가올 문턱에 서있다 싶으니 이제는 겨우 살림을 정돈하고 봄맞이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그간 총현은 추운 동절기에 겨울답지 않은 열기와 분주함으로 지냈듯하다.

지난 연말과 첫달을 보내면서 갖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각 부서별로 한 해를 단단한 각오로 보내기 위한 전열의 정비였다고 할까. 여하간 겨울의 냉기를 압도하는 열심들이 본교회당에서 기도원에서 드높았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겨울은 그런 추위를 모르고 지냈던 것 같다. 이것이 우리 총현 가족들의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싶다.

그간 우리가 추위에 움크리고 얼어붙지는 않았겠지만 싸늘한 기온과 현실에 위축감을 느끼기도 했고 따라서 좀더 무언가 사모하고 더 강한 은혜와 영적무장을 바랬던 것은 사실이다.

봄이 오면 만물이 겨울의 잠을 깨고 움크림을 떨치고 일어나 생명이 약동하며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각 심령과 교회를 향한 신앙의 봄은 자연의 계절처럼 자연히 오지 않는 것 같다.

신앙의 봄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 속에서 움트고, 신령의 춘삼월을 기대하는 기도와 갈망 속에서 다가오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현에 그간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아직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크고, 넘어야 할 산이 높기에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하는 갈급한 심정이 또 할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금년도에 새성전으로 이사하게 해 주옵소서!

○금년도에 더 많은 천국밀감을 영성하고, 더 많은 복한선교회 특공대, 더 많은 선교사를, 더 많은 지교회와 개척교회를 세우고 돕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바람과 간구하는 생정으로 신령한 봄의 절기를 맞이했으면 한다. 나의 가정에 신령한 봄의 훈풍이 불고, 직장에 신령한 질서의 질서가 임하고 재가 처한 각부서가 하나님의 생명의력과 능력의 약동하는 절기가 열렸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봄 맞을 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단체적으로 합심하여 영적 봄의 계절을 사모하고 맞이하는 자세가 요긴한데. 마칠 어린 기회가 허락되어 감색한 일이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신령부흥사경회가 바로 그러하다.

이번에 각자가 소원하는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바라는 은총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신령한 봄의 절기가 임하기를 기대한다. 움크리고, 얼어붙고, 운동 부족으로 굳어졌던 몸들을 활짝 펴서 맘껏 활동하고 주신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는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힘망마다, 가정마다, 각 부서와 처소마다, 신령한 봄의 절기를 준비하자. 객려를 드란다.



五 大 目 標

天 國 日 均 養 成

北 韓 宣 教

民 族 福 音 化

世 界 宣 教

聖 殿 建 築

월간

총현

The Monthly Ching Hyeon

83.2월호

총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1권 제2호 통권107호

1983년 2월호 차례

□권 두 언/봄을 위한 준비.....주 간 · 2

□이달의말씀/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김창인 · 4

□지 상 특 강/십계명 ②.....이종윤 · 6

□신춘좌담회

내일의 총현과 우리의 자세.....9

참석자 : 김원남 · 장정일 · 김창근 · 김기정 · 이태규 · 정은표 · 이종국

사 회 : 김영구

□성경강해⑤/이사야서

· 우리 위하여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김창인 · 18

□지상논단⑧/심방론

· 효과적인 심방.....조영길 · 20

□특 별 기 고/

· 양육하시는 은혜.....윤용규 · 23

---

□이 달 의 시/기 원.....김현하 · 19

□신 간 안 내/위대한 인생 예찬.....호 브 · 30

□찬송가감상/지훈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김창근 · 25

□선 앙 수 삼/하나님께 축복받은 C집사.....안유형 · 8

□독 자 의 난/99마리의 양을 이끌고 왔을지라도.....김영길 · 26

□기 관 소 개/도서실 이용을 생활화하자.....이대길 · 27

□해외선교자료/중공 인구 10억 3천만.....29

---

선교사 · 선교지소식.....28

교회소식.....32

이달의 교우동정.....33

1월의 행사.....34

편집후기.....34



표지설명/“인자가 온 것은 십자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살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 28)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광경이 재현되었다. 그것은 지난 2월 본당 하층에서 열린 유년부 계절 학교 기간 중 유년부 여관들에게 배운 조그만 성경 경연 대회였다. 표지는 동 성국 경연 대회에 예수님으로 출연한 어린이가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다.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이달의 말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목적

# 하나님께서서 받으시는 제사

구약의 제사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레위기 1:1-2〉

1.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끌고 가면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양이나 소를 찢어 죽여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깨끗하게 씻은 후 불에 올려 놓아 모두 태우는 제사입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2.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내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되어 평안을 누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3.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내 생각은 옳았는데 방법이 나빠서 죄를 범한 것이 가슴 아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 데 죄악의 상처, 몸의 질병, 인격의 습관이 새로워집니다.

4.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모르고 죄를 범했는데 얼마 후에 그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이를 회개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손해 끼쳤던 것을 갚아 그 사람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5.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양이나 소가 아닌 곡식을 제물로 드립니다. 드리되 꼭 소금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 1:2)



쳐서 드립니다. 소금을 천다는 말은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드린다는 말입니다. 소제는 쉽게 말하면 감사헌금입니다. 우리는 감사헌금을 바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바쳐야 합니다.

신약의 예배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소나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죄를 지고가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자신을 온전히 번제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약의 제사인 예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까?

1. 찬송입니다.

예배는 찬송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고마우신 모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찬양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영혼이 찬송을 잘 부르면,

- ①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시는 제사가 되고
- ②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 ③ 불신자들이 들으면 진도가 됩니다.
- ④ 마귀는 찬송을 듣고 겁이 나 도망가고
- ⑤ 새로운 능력을 받아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울려 퍼질 때,

- ① 신자들의 영혼이 배 부르고 살찌고
- ② 성도들에게 지식이 생기는 교육이 되고
- ③ 생활의 갈 길을 가리켜 주는 지침이 되고
- ④ 십자가 정병의 무장이 갖추어지고
- ⑤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여 자기의 일생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3. 자신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내 시간, 지식, 지위, 건강, 돈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어드리는 헌신번제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뀐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번제로 드려진 다음부터인데, 신약의 예배는 효과있는 찬송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선포되고,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게는 축복, 악마는 도망가고 자손만대가 복을 받으니 땅 위에서부터 천국을 숨쉬는 백성이 됩니다.

원컨대 우리 총현교회는 오늘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배를 바로드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고 세계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바로드리면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창 인 목사

(본교회당회장)

# 십 계 명 ②

<출20 : 1 -17>



이 원고는 1982년10월10일 주일 1부예배에서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것입니다.<편집자 주>

## 제2계명

둘째로 제2계명의 말씀을 간단히 상고하겠습니다. 1계명에서는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2계명에 와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이 차이가 남니까? 일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참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구원의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2계명의 말씀은 예배에 대한 정당한 방법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 제2계명이 말씀해 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일계명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2계명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결한 마음, 신령한 마음이 요청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계명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을 배격한 말이라면 2계명의 말씀은 거짓 형식을 금하신 말씀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내심으로 내적인 것으로 해야지 외적 모양만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외형적 모습은 내면적인 것의 발로요 그

이 종 윤 목사

(아세아연합신학원 · 교수)

의 표현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2계명의 가르침은 영적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 교회에서 12사도들이 죽기도 전에 사도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갖다가 붙여놓고 교회 안에 세워 놓기까지 했습니다. 사도들이 사용하던 유품들을 무슨 커다란 귀한 것이라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가건적 신앙 공간적 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 여기저기에 이상한 것 붙여놓고 이상한 것 세워놓아 사람들의 눈이 그만 현혹되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경건한 모습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제가 그림 잘 그리는 분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을 한 번 그려보라”고 부탁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은 그림으로 표현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이나 의지를 그림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영혼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나 그림은 하나님께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입니다. 이같은 행동은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어느 조각가가 김 창인 목사님의 형상을 조각하는데 김 창인 목사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김 목사님 사진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조각가가 자기 멋대로 김 창인 목사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각을 해놓고 그림을 그려다가 김 창인 목사님이라고 밑에다가 써붙였다면 그것이 또 잘 되었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상하게 불품없게 그려졌다면 김 창인 목사님이 자기의 자화상이라고 가



서 보았을 때에 그 어설픈 자화상을 보시고 그 느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필경 불쾌하실 것입니다.

## 기독교 미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금속세공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망치와 부절가락으로 신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힐난을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목수들을 가리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일부는 방을 따듯하게 하는 뿔감으로 쓰고, 고기를 굽는데 사용하면서 또 다른 일부로는 자와 대패와 콤파스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있으며, 그것을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한심하구나. 오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모든 성상들은 참으로 잘못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의 유품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려놓고 그 앞에 서서 마치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수호신인양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나의 마력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장신구로 목에다가 걸고 다닙니다. 군인에 나가는 아들에게 성경을 군대에 가서도 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총알이 와도 맞지 않을테니 성경책을 들고 다니라고 하나의 기독교 미신을 오늘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영적인 종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2계명의 말씀은 영적 종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전적 신이 아니라 공간적 신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몇일 전에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충현교회 교인은 아닙니까. 어느 성도가 전화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지금 야단났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저와 같이 2개월 전에 교회는 같이 출석을 했읍니다마는 며칠 전에 추석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고향에 갔더니 믿지 않은 집이라 제사를 지내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남편에게 하지 말자고 했더니 남편이 불효자식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추석날 이후 지금까지 우리 가정은 파탄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절실한 질문을 해 왔읍니다. 저는 그 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 가서 있다가 돌아오니깐 해수가 벌써 13년이 지났읍니다. 아버지 무덤을 떠날 때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는데 귀국한 후 며칠 있다가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는데 너무 서글픔과 너무 이상한 감정이 생겨서 나는 아버지 무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무덤의 풀을 손으로 잡고서 한참 울었노라고 만일 그것을 누가 바라보고 이 목사는 무덤에다가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냐고.

## 신앙양심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가전적 종교가 아니라 영적인 종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신으로 섬겼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가 술을 따라놓고 과일을 차려놓은 다음에 절을 하는 것은 신에게 절을 하는 곧 우상에게 절을 하는 예법이 될 터이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조상 내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금 떠올라서 ‘아버지’ 하고 불러보다가 아버지가 대답이 없으니 아버지의 무덤을 잡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제물에 놓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양심에 가책이 없을 때에는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더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웅졸한 우상에게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읍니까. 너희는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 것도 하나님 이외에는 섬기지 말라. 여기에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신처럼 의지하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처럼 예배하지도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 끝까지 정절을 지키라

1938년 9월 9일 제27회 장로교의 총회장엔 193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97명의 일본 경찰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불행한 해입니다. 이날에 결정된 사건은



대한민국의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일본 신사에게 절을 하기로 신사 참배를 가결한 날입니다. 한국 교회 백년사는 아름다운 역사만을 장식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신사 참배를 결정하고 그 해에 부총회장님을 앞세우고 노회장님들이 그 뒤를 따라서 평양의 신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물론 주 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은 이 일에 반대를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 신사 참배에 굴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어떤 아내가 어떤 사람의 심한 위협과 공갈에 못 이겨서 견디다 못해서 그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고 말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남편이 참 불쌍하거나 동정을 할 남편이 세상에 있겠는가. 만일에 정절을 지켜야 할 아내라면 위협과 공갈이 아니라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사정을 아시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우리 천정 우리 시집 식구가 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절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고 머리를 꾸벅거리며 우상에게 제물 앞에 절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의 계명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둘째로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4절 말씀을 보면 위로 하늘에 땅 아래 물 속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읍니다. 명예의 우상, 돈의 우상, 땅 위의 어떤 우상도 우리는 만들거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데올로기 우상까지 생겨서 일본의 적군파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받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며 쫓아가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공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4대까지 그 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으면 수 천대까지 복을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 신앙수상

# 하나님께 축복받은 C집사

안 유 향 권사

나는 C집사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흐뭇함을 금할 수가 없다. 보잘것없는 인생인 나의 마음이 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흐뭇하시며 기뻐실까.

C집사는 3년전에 충현교회 장년 새신자 학습반 우리 I반에서 공부를 했다. 처음부터 사람이 착실해 보이며 언제나 제일 먼저 출석하였다. 숙제도 한번도 빠짐없이 잘 해왔었다. 그는 6개월 개근에 숙제도 우

수상을 받았다.

세례반에서도 모범생으로 수료하고 곧바로 지도자양성부로 들어갔다. 지도자양성부를 마친 후, 어린이 색신자부 반사가 되더니 전도부장에 되고 집사로 임명받았다.

천호동으로 이사하여 천호1, 2구역장으로 임명되었다. 바로 우리 구역의 구역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구역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볼 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더니 지금은 박

력있고 말씀 중심으로 잘 인도하신다. 나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뿐이다.

그는 가정생활에도 빈틈이 없고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도 신용을 지키고, 교회생활에서도 남전도회, 북한선교회 등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어꿀 보다도 더 달고 맛이 있다. 그에게는 파격적인 전진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 것이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한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C집사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내일의 총현과 우리의 자세

일 시 : 1983년 1월 26일 오후 5시

장 소 : 월간 총현 편집실

|       |     |    |            |
|-------|-----|----|------------|
| 참석자 : | 김원남 | 목  | 사(심방위원장)   |
|       | 장정일 | 목  | 사(전도위원장)   |
|       | 김창근 | 목  | 사(예배위원장)   |
|       | 김기정 | 장  | 로(건축위원장)   |
|       | 이태규 | 장  | 로(당회부서기)   |
|       | 정은표 | 전도 | 사(성경연구원지도) |
|       | 이종국 | 집  | 사(교육위원회간사) |
| 사 회 : | 김영구 | 목  | 사(출판국지도)   |



김 영구 : 먼저 이 좌담회를 열게 된 취지라고 할까 의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충현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9월에는 새 성전에서 30주년 기념 행사가 베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30세까지 가정을 중심으로 공생애 3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다가 30세쯤 될 때에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3년이었지만 놀랍게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현교회가 지나온 30년은 오히려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배우고 연단시킨 30년이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새성전에 가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행히 성전 건축도 잘 진척이 되는 가운데 새성전 시대라고 할까요, 지금까지는 총무로 5가 좁은 성전에서 새성전 시대에 돌입하게 되겠는데 규모라든지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바른 준비와 마음의 대책이 없이 맞이해서는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새성전 시대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충현교회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나 어디까지 와있나, 우리가 지금 서있는 위치 우리 한국 교회 및 우리 교단안에서의 세계적으로 충현교회의 역할과 이미지가 부각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충현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가 교계적인 비중으로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 은표 : 먼저 월간 충현에서 이러한 기획을 했다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보나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로 보나 상당히 적절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현교회의 현 위치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충현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전제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충현교회의 현 위치를 생각할 때에 역시 과거의 충현교회와 이제까지 흘러온 역사적인 배경과 활동의 특징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과거의 충현교회가 여태까지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회장 김 창인 목사의 목회자로서의 목회 활동과 목사의 신앙 노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목사의 목회의 흐름이 전도에 시종일관 역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하고 현재 볼 때에는 우리 교회가 예산면에서 보나 사업의 규모에서 보나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역시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수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지켜온 교회로서 특징적인 것을 두드러지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같은 충현교회의 어떠한 요소와 당회장 목사의 순교자적인 신앙, 그리고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이 강조되어진 점이 우리 충현교회의 신앙 전통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재의 충현을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충현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볼 때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가 현재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많은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충현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또 충현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하는데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 작은 교회들도 음으로 양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어떠한 것을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현교회의 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충현교회 자체의 활동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국내 여러 교회에 보급된다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역시 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떠한 위치점을 이루는 개교회로서의 시발을 분명히 했다고 보는데 그러한 면에서도 역시 해외 선교라든지 국외적으로 볼 때에도 앞으로 충현교회가 과거에 좋은 모범과 활동을 했던 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현재 우리 위치에서 그러한 것들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의 충현교회가 내적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방대한 조직과 예산,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효과있고 조화있게 어떠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좀 현재의 어떠한 위치를 다루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중국 : 정 전도사님께서 내면적인 위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81년 6월 3일에서 6일까지 3박 4일 코스로 장로님 32분이 전국 20여 곳의 교회를 탐방하셨습니다. 그 때 각 교회에서의 반응이 충현교회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하시면서, 돌아오신 다음에 좌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내려진 결론이 충현교회는 "나"만의, 우리만의 충현교회가 아니라는 대내외적인 결론이 확실히 나타났고 이러한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감으로써 긍정적인 면으로 많은 교회들보다 앞장서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부언할 것은 몇 년전만 하더라도 타교회에서 우리교회 주일학교 견학을 많이 오셨습니다. 요즘은 뜸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담보 내지는 후퇴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박관념 같은 것에 쫓기고 있는데 빨리 여기에서 탈피하는 것이 저희 충현교회를 바라 보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김 영구 : 이 장로님, 교회에 오랫동안 봉직하고 계시면서 보고 듣고 느끼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태규 : 예년보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충현교회의 새성전 건축 문제, 그리고 목사님의 5번 설교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성전 건축에 앞서 목사님의 설교가 한 주간에 다섯 번



◇이태규 장로

을 어떻게 하시나 하는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연세를 볼 것 같으면 70이 내일 모래로 가까와 오시는 분이 하루에 설교 네 번을 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대해서 많은 교역자들의 말씀이 어떻게 시간을 할애해서 2, 3번 정도 설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설교집을 구독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많이 오고 책자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김 목사님의 설교 책자를 원하는 분들에게 많이 보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교 테이프도

지금 저희가 보급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가지로 생각하다가 자동 보급기를 하나 설치해 놓고 주일날 이라도 보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착수했습니다. 근간에는 주일날 판매한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보급이 아니면 교회에서 이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지난 주에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어더까지나 이것은 파는 것이 아니고 보급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판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제작 원가로 교인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파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일날 보급을 하지 아니하면 평일에는 와서 가져가는 숫자가 많지 않은데 지난 주일에도 주보에 광고를 안했고 게시판에 써붙인 정도로 근 100개 가까운 것이 하루에 보급되었다고 볼 때에 앞으로 보급의 전망이 밝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판 관계에 있어서 설교집 또는 설교 테이프 설교 책자가 많이 보급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 은표 : 충현교회의 현 위치를 또 다른 위치에서 한번 이야기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옛 것과 새 것과의 교차가 어쩔 수 없이 되어야 되는 현실에 와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회장 김 창인 목사님의 순교자적인 뜨겁고도 열정적이면서도 순수한 신앙을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새성전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흐리지 않으면서 또한 새성전에 나아갔을 때에는 모든 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개혁을 부과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위치에 와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인 면에서는 아까 좀 언급을 제가 하려고 하다 말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느껴요.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충현교회가 현재 얼마만큼 간직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혹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조직이 방대하고 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대교회이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서 느끼는 느낌은 작은 교회와 같은 그러한 성도의 따뜻한 흐름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다운 교회를 유지하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우리가 새성전에 이주를 하게 될 때에 사실은 저도 조금 불만스러운 것을 이야기한다면 새성전에 우리가 나아가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벌써 몇 년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몇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무성하게 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구체화되고 진전된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사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성전과 웅장한 성전 현대 시설을 갖춘 성전 건물을 남겨준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보다도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교회가 영속적으로 발전하고 부흥되는 길이라고 볼 때 새 성전의 외형적인 건물의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올바른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그러한 것을 강조하면서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올바른 신앙의 전통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될텐데 그러한 면에서 전혀 언급이 안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시점에 와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극단적인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카톨릭같은 유명한 성당들이 200년 300년 몇 백년 걸려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이 교회 본질을 상실할 때 그것은 역시 하나의 건물로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총현교회가 지금 조금쯤은 그런 면에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앞을 내다본다면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물에 어울리는 신앙의 수용 태세와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크고 훌륭한 외형적인 성전을 완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우리의 위치가 신구의 어떠한 교체가 되는 당회장 목사님이, 사람이 나이라는 것을 볼들 수가 없는 것이니까 10년 내에 우리가 어떠한 큰 변화를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당회에서는 차원높은 장기적인 안목의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 기점 : 당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를 생각을 안해본 바가 아닙니다. 아시는대로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쉽게 내놓을 수도 없고 몇 번 내놓았지만 그것 급할 것 없는데 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하여서 적극적으로 의논을 할 수도 없는 성질입니다.

건축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적인 면이야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잘 하시겠고, 외적인 면에서 건



◇김기점 장로

축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면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모든 것을 다 새성전에서" 자연히 그렇게 되는데 물론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영아부가 5부를 보는 형편입니다. 대예배 5부는 모르지만 우선 영아부가 5부로 예배드리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 설립 10주년이 되면서 새성전 짓는 일을 계획했읍니다.

금년도는 교회 설립 30주년인데 금년 9월에 입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금년이야말로 다른 국면도 다 어렵고 중요하지만 건축 부문도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금도 수요도 많이 되고 동시에 새미한 기술과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나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 새성전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우선 장소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해결이 안되어요, 우선 교육관과 선교센터는 금년 6월 내지 7월까지 다 마무리 하려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예배드릴 데가 없습니다. 예배 장소가 해결이 안된 채 나갑니다. 본당이 다 완공되고 가게 되면 문제가 거의 100%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손도 못대요. 본당에는 옆에는 바람 안 들어올 정도로 벽돌이나 쌓는 것이 고작이고 중강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장소는 그야말로 바람이나 안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팔들예놓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해서 거기에 맞는 의자를 갖다 놓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특수한 의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의자를 갖다 놓고 예배드릴려고 하니깐 겨우 1500석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고 하니깐 교육부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되려면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요청됩니다. 아무리 일선에서 뛰어도 뒷받침이 안 되면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도 온 교회가 합심하고 해외에 있는 총현의 식구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금년이야말로 최선을 기울여 새성전으로 옮겨서 그런 정도라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영구 : 이번에는 현실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새성전에 가서 우리 총현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해야 될지 새성전 시대의 총현, 서기 2000년 대의 총현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 하여야 되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인 것에서부터 장래적인 안목에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원남 : 건축 문제는 장로님도 얘기했지만 교인들이나 제직들 가운데도 새성전에 이사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 생각은 첫째 건축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 수를 가지고 저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새성전에 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니다.

주일날 예배의 출석수를 보면 매 가구당 한 사람 나오는 꼴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 왜 못 나오느냐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못해서, 혹은 우리 교회가 제도적으로 잘못 되어서 혹은 열심이 없어서 혹은 질적으로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못 되어서 모이지 않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일 큰 요인이 결국은 수용을 못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가장 요긴한 것은 성도들의 질적인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질적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목사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벌써 목사님은 하나의 쫓대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만 바라봐도 보수적인 신앙을 생각하고 총현을 생각하게 되고 총현의 과거 역사를 들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잘 되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아까 장로님 말씀한대로 아무래도 신구 교체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떤 교체보다도 협동목사가 누가 되었는지 뒤를 이어줄 사람도 우리 목사님 식의 목회를 배워서 그런 식으로 뒤를 이어 나가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 역시 질적인 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볼 때 각 부서의 활동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국에서 어디 갖다놓아도 우리 교회 교육부도, 심방부도, 전도부도,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심방부에서 제일 처음에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늘 보지 않습니까? 과연 총현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신앙상태가 다른 교회 교인과 비교할 때 어떠냐 할 때에는 월등하게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 하나하나 사귀어 볼 때 교인들의 신앙상태가 참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사람이 백 명에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금년에 확정된 우리 구역 조직, 구역 운영이 새성전에 나아가서 앞으로 5년후를 전망한 것입니다. 구역 조직이나 구역 운영이 절대 다른 교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표면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하고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속 면에 가서는 참 잘하고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데 우리 권찰회 좌석이 꼭 찼습니다. 그리고 김 창근 목사님의 구역 공과를 수요일과 주일 오후에 가르치면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질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제직 일꾼 권찰이 1300명 입니다. 1300명이 다섯 세대씩 구역으로 나누면 2년 까지도 다 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구역에 세 사람 네 사람이 같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창로님 권사님 남녀



◇김원남 목사





◇김창근 목사

집사님 권찬님 네 분이 한 구역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으로 배정한다면 앞으로 2년 까지는 버틸 질적으로 좋은 일꾼들이 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질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가능성과 지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더 원활하게 움직여지면 새성전도 문제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 창근: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고 마무리 단계로 골조는 끝났고 내장 공사도 한참 진행 중인데 예배당을 빨리 지어야 된다고 하는 지급성, 또 우리 각 부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지금 다른 어느 교회 못지 않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신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키우는데 있다"하는 목사님 말씀을 기억 합니다.

그래서 새성전 이전을 앞두고 예배위원회를 그 동안 구성하고 준비한 것은 제1단계가 하나님께 산제물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실제 예배에 수종드는 성가대 육성책을 강구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장로님이 전부 성가대장으로 임명돼 그 전에 볼 수 없던 활기가 성가대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성가대마다 대장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는 성가대 안에 임 광식 장로님이 성가대 고문으로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3~400명의 성가대를 통솔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못 하는 것이죠. 이제 각 성가대마다 장로님이 계시고 임 광식 장로님은 성가대 부장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당회에 청

원을 했습니다. 고문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성가부장 장로님으로 했으면 좋겠다 성가대 육성을 위해서 재정적인 면에도 지원이 됩니다.

금년부터는 한 성가대마다 풀리스트를 4명씩 허락을 해 주셔서 물색 중에 있고 성가대를 육성하고, 거기다가 수요일 저녁에는 지금까지 성가대가 없었지요. 수요일 저녁에도 성가대를 세우기 위해서 연초에 성가대를 모집하고 현재 모집 중에 있고 훈련 중에 있고 연습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성전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역장 훈련을 매주일 4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갖는데 이제 강대상 위에 올라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난 주에는 밖에서 서 있다가 가버린 예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에 구역장들이 열심이 있습니다. 심방다니 보면 구역장 공부를 해 가지고 집에 와서 몇번씩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예를 들면서 10번 20번 녹음해 가면서 연습해서 가르쳐 보라고... 그래서 구역장들이 힘을 얻고 새성전에 나가서 4부, 5부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넘칠 수 있는 저력과 열의로 교회를 잘 뒷받침하도록 키워주는 것도 하나의 큰 사명인 줄 압니다.

김 영구: 전도위원회가 가장 할 말씀이 많은 곳인데 늦었습니다.

장 정일: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사실상 우리 총현교회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때를 맞았다고 봅니다. 또 모든 돌아가는 것



◇장정일 목사



을 보아서 복음전도의 시급성이 대단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섯 가지 목표 중에서 북한선교, 세계선교, 민족복음화, 이 세 가지는 5분의3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크게 지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꼭 항공모함이 떠가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예로 들때 항공모함도 필요하고 구축함도 필요하고 또 상륙전도 필요하듯이 큰 교회가 해야 할 일들도 생각되어야 합니다. 재가 전도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민족복음화는 대단히 시급하게 요청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 교회들이 어떻게 해 주면 실력 있는 교역자와 하나님의 신실한 분들이 평신도로서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 훈련을 금년에도 6월로 계획하고 200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또 농어촌교회 평신도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도자 초청을 3월에 200명을 초청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일주일간 훈련을 받는 일 이것은 작은 교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벌써 11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동안에 미흡했던 점이 어촌의 어부들, 선원들에 대한 전도입니다. 사실상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어촌과 선원들에 대한 전도가 시급하다고 보아서 금년에는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연안선교와 어부들과 선원들을 전도하는 방향에 눈을 돌려서 기반 조성을 하고 앞으로 새성전에 나갔을 때에도 명실공히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부터 바다속에 있는 섬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군목을 금년에 5~60명을 초청해서 일주일간 숙식 제공해 드리면서 수련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군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60만 대군이 다 교인이 되어야 되겠고 교도소나 경찰이나 공무원들 복음화는 아주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지분과를 농촌과 어촌과 도시 3개로 구제안을 수립해서 전도할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특수분과는 군복음화가 대단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항목으로 하고 직장복음화와 특수 전도로 세분해서 이제는 큰 교회로서의 사명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새성전에 나가서 교회 성장 배가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성인들이 교인 매가는 구역이 일차적으로 뛰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총동원 전도를 구역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심방위원회 확장분과가 좀더 확대가 되어서 총동원 전도를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

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 창인 목사님께 주신 특별한 사명 중에 북한선교가 있는데 성령님의 뜨거운 도와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겠고 하나의 열기로 타올랐다가 스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정립도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발전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세계선교는 그 동안 선교사 파송하는 것으로서 선교회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 분들을 초청해서 훈련하는 것—금년 8월로 이 계획을 세우고 있음—그리고 이번 총헌세계선교회로 개최하면서 선교인을 파송했는데 저는 이것을 전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한국인이 들어가는 곳마다 선교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는 그



◇이종국 집사

런 선교회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북한선교와 세계선교를 전도의 두 날개로 본다면 민족복음화는 농어촌전도와 특수전도를 두발로 보아서 그것을 위해서 전교인이 전도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위원회 지회인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적장전도회가 특별히 내지, 농촌, 어촌 전도를 위해서 협조적으로 일하고 발전적으로 육성을해서 민족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종국: 1980년 대망의 80년대를 맞으면서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늘 기도하여 오고 있는 다섯 가지 목표, 천국일군 양성,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성전건축 등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를 떠나야 되며 내 민족주



의도 떠나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일체화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새성전 이전에 앞서 우리가 어떤 생활 훈련을 위해서 교육하지 않으면 막상 나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 백주년 기념 행사는 저희 선교센타를 중심으로 하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바램이라고 할진대 지금 주일날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의식 같은 것은 물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는 것으로는 이제는 통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질서의식을 뿌리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새성전 이전 후에 교회 경상비의 단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물



정은표 전도사

론 아까 심방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교세가 확장되면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공고히 되어있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을 한번 겪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 영구 : 질서의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종국 : 당회에서 결정된 어떤 사항들이 협조체제 아래서 실시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적인 질서의식의 강화를 통한 상호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설교 중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휴지를 직접 주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직접 주우시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계면책은 것을 느끼

면서도 몇 번 저도 주워 보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좁는데 신경·쓰기 이전에 버리지 않도록 만약 각자 성도들이 이것이 나의 교회라고 주인 의식이 확고하고 우리가 일체감으로 묶여져 있다면 좁기 이전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금년도에 장로님들이 주일학교의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본을 보여 주시기 때문에 교사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또 생활 면에서 모범이 되시는 장로님들을 따라 갈 수 있으리라고 보아서 교사 문제가 시급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밝은 전망을 내다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영구 : 시간이 많이 갖고 충분한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고 개괄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가운데 그런 얘기가 포함이 되었읍니다마는 새성전에 가기 위한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준비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더 언급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종국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년 12월에 「회교와 전망」이라는 특별좌담회에서 새성전 이전을 위한 준비위원회나 기획부의 발족을 긴급 동의했었습니다. 아까 건축위원장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복안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 새성전에 나가서는 지금 총무로 5가 현재 교회보다는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이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일의 분담이라고 할까 명확한 기준이 아직도 분명치 않은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계획하는 준비의 일환으로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놓는다면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이나 질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틀림없이있는데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르리라고 예측할 때에는 어떤 명확한 조직내의 규정 같은 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흐리다면 굉장한 혼선을 빚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 원남 : 질서의식은 16부 주일학교가 교회에서 휴지나 껌같은 것을 버리지 말자 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린애들하고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예배하고 관계가 직접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부터 예배의 마음자세가 소란해 집니다.

주일날 주보에다 각 부서의 안내서를 넣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경건을 흐려 놓습니다. 교회당이 좁아서 협소한데 주보 안에다가 주보만 있으면 좋겠는데 수다하게 안내서 대여섯 장이 끼워지니까 그것 주우려고 정신이 없고 결국은 정신



적인 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마음을 깨뜨려 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새성전에 가서 엄숙한 분위기가 이루어지려면 물론, 여기 교회의 예배가 엄숙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넓고 들어갈 때부터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경건하게 갖는 환경이 아니면 안될 것입니다. 들어가서 엄숙하게 앉으면 주보 한 장도 가다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김 기정 : 저도 준비위원회 조직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기회있을 적마다 의논을 하는 일인데 전체 당회원들의 생각과 거리가 있어서 아직 준비위원회를 정식으로 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하여 새성전에 옮기면 준비위원회는 사실 건축위원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교회적으로도 필요하지만 그 안(案)을 내가 낸 것 같고 그 후에도 여러번 기도원에 가서도, 당회 모임 때마다 기회있으면 그 얘기를 했는데 이사가는 일이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조직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하면 각부의 인재들에게 자문을 받으면서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모여서 의논을 하고 조언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좀더 해 주시고 이런 모임에서만 하지 말고 그런 안이 있으면 간단한 메모에라도 적어서 저에게 주어도 좋고 건축부 누구에게 맡겨도 좋고 격식 갖출 것이 아니고 거두절미하고 내용만 써서 보내주시면 우리에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 은표 : 각 부서 별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성경연구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는데 그 전에 김원남 목사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 이상에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서 문제가 언급이 되고 예배 문제가 언급이 되었는데 충현교회가 가져야 할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교회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충현교회답지 않다고 생각하고 역시 충현교회가 기준을 갖는다고 하면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말씀 그대로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접근되어 있는가 이것으로써 가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 교회가 여러 면에서 앞서 있고 잘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도 모든 면에서 발전되고 개선했 접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문제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는데 이것은 어떠한 주일날 아니면 제 한된 시간에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의 태도 그것도 평



◇김영구 목사

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는 좀더 확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일주일 동안의 생활 전체가 하나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까지로 끌어 올려야 할것 입니다. 김 영구 목사님께서 초두에 우리가 30년이나 되었으니까 성숙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고 모든 면에서 거기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역시 거기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표준을 두고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우리의 발전이라 든가 정도를 말할 것이냐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 영구 :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들이니까 각 부서가 다 역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역할과 사명이 요청된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만 활발해서 전체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도, 성경연구, 심방, 여러 분야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빠짐없이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절감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충현의 현 위치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고 어떠한 뜻대와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될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침내 9월부터 새성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새성전을 중심으로 한 우리 충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숙한 섬김과 충성을 드리고 민족과 세계에 중추적인 사명 감당에 첫걸음이 되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좌담회를 마칩니다.





김창인목사의

## 이사야서 강해 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고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오늘 서울에 30층 빌딩을 짓고 화려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고속도로가 나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시민이 좋은 옷을 입게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주당하게 되면, 흉년이 들고 아름답던 예루살렘이 원두밭의 상직막이 되는 것처럼 서울도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 3)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

처음에 흉년이 들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성이 하나 둘 망해도 회개할 줄 모르면 그 다음엔 별 수 없습니다. 남아있던 백성이 아주 망해 버립니다.

### 3. 최후의 경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고” (9절)

이 말씀을 보면 희망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이 조금 남은 것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실력이 있거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임금이 실력이 있어서 원수들과 싸워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조금 남겨놓은 기한내에 회개를 못하면 아주 없어지고 맙니다. 마지막 심판을 앞에 놓고 한번 마지막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남한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남한에 군인들의 실력이 훌륭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울과 이 백성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6.25때 모두 다 물고기 밥이 되었거나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집

단도등을 하다가 언제 매맞아 다 죽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동원시켜서 악한 무리들을 쫓아 보내시고 조금 남겨 두셨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신 기한입니다. 이 기회에 회개하면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패역위에 패역을 더하면 조금 남아있던 것마저 아주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저는 이사야를 생각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와 꼭 같은 줄 압니다. 이사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 불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망해 다 없어지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을 때 마지막까지 예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백성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북쪽은 다 빼앗기고 남쪽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이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입니다.

이제 이러한 때에 너희가 너희들의 힘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



# 기원(祈願)

김 연 이 전도사

(유년부 지도)

하와의 됴됨이는 돕는 배필  
하나님의 능력·사랑 나타내는 아담 돕는자  
그녀의 머리는 아담이라  
만물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네  
하와는 자기 됴됨이 알지 못하고  
사탄이 유혹할 때 아담에게 묻지 않았네  
남편의 결정권을 도용(盜用) 했 다네  
이것이 하와의 교만이라  
아!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 됐구나  
자연도 통곡하며 몸부림 쳤구나  
역사는 역행(逆行)되어 비운(悲運)을 토(吐)하고  
최악으로 온 세상은 시커멓게 멎들었구나  
하와의 됴됨이는 보조자(補助者)

세상사람 됴됨이는 불순종 아들  
하나님의 권능·영광 방해하는 사탄 돕는자  
그들의 머리는 사탄이라  
그리스도 대적하여 세상 삼키네  
세인들은(世人) 자기 됴됨이 알지 못하고  
열국(列國)을 다스릴 때 그리스도께 묻지 않는다네  
그리스도의 결정권을 찬탈(篡奪) 한 다네  
이것이 세인의 교만이라  
아!  
구더기들의 진선미(眞善美) 철학이 난무(亂舞) 하누나  
유토피아 이상주의(理想主義)가 영원(永遠)의 자리를 침범하누나  
핵무기(核武器) 저장고는 늘어만 가고  
사람들은 원자력(原子力)의 노예만 되어 가누나  
세인들의 됴됨이는 파괴자

우리와 됴됨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긍휼·자비 나타내는 주님 돕는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교회 위해 만물을 통치 하시네  
사람의 형상따라 하나님을 창조하지 말자네  
인생이 주님을 다스리지 못하네  
우리의 마음에 성령 채우세  
우리의 입술에 복음 채우세  
아!  
반(反) 하나님 반 기독교(基督教)이 자취를 감추네  
죽(竹)의 장막 꺾여지듯 철(鐵)의 장막도 녹아져 내리겠네  
갈과 장이 변하여 보습의 쟁기 되고  
죄악의 도성 변하여 새 예루살렘 되리라  
우리의 됴됨이는 타페이노프로수네(겸손)

십으로 겨우 남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면 살고, 더 패역을 계속하면 소돔 고모라 처럼 되고 만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 결 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가지 큰 진리를 깨달아야 하겠읍니다.

첫째로 사람이 악마에게 미혹 당하면 짐승만 못하게 됩니다.

악마에게 미혹 당하면 돈이 많아도 세력이 높아도 짐승만 못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악마에게 미혹당한 정신병자, 미치광이가 되지 맙시다. 둘째로 조금 남겨두신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써 선한 일에 몸과 마음을 바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마치 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 마음으로는 배반하고 형식적으로만 조금 순종하는 흉내만 내다가 마지막에 그 흉내마저 버린다면 아주 망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겉대기만이 남은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겉대기만 남았던 것 까지도 무겁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소풍 가고 만것하다가는 아주 없어지는 날이 올까 무섭습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남겨두신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 자신도 살고 내 민족도 살려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 효과적인 심방 ③

— 심방에 대한 성경적인 小考 —



조 영 길 목사

(심방부 1 지구 담당)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심방이란 개념에 대한 이해로 친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여덟가지로 생각하여 보았다. 십 여가지로 더욱 자세하게 살펴 볼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라도 심방이란 용어 이해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아 진다.

우리는 지금까지 심방이란 단순한 개념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심방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도, 심방에 대한 목적도 알 수가 있고, 심방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이해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하나씩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 II.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방에 대하여 :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하나님도 다 심방하시는가? 라고...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한다. 하나님께서도 심방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 1. 하나님(聖父, Father)의 심방

성부 하나님의 심방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폭 넓게 나타나고 있다.

(1) 에덴 동산을 심방(찾아오신) 하신 하나님(창 3 : 8~20)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빠

져 금과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2: 17)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 타락하게 되었다(3: 1~7). 이같은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을 찾아 오신 것이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3: 8)고 하였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으로 찾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The Lord God walking in the garden, K. J. V) 이 말씀은 주 하나님이 동산으로 찾아 오시고 그 동산에서 걸어 다니시는 것을, 그러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고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그들의 죄값으로 죽은 인생을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어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범죄한 죄값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심으로 죄악의 형벌이 무서움을 보여주셨다.

"거닐다"는 말씀은 미트할라크(Mithalak)란 말이다. 이것은 할라크(halak)란 동사의 분사형이다. 그 뜻은 거니는 사람, 배회하는 사람(a wanderer)이란 뜻이다. (halak, 할라크: 가다, 걷다는 뜻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시고(심

방) 거니신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본다.

(2) 아브라함의 장막을 심방하신 하나님(창 18 : 1~10) :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 아모리 사람 마르레 상수리나무 아래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심방하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보이시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심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고, 이와같은 계시는 의인주의 계시(擬人主義啓示 Anthroprpomorphism)라고 한다.

하나님은 이같은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심방하시고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여 주시었다.

우리는 이같은 사건에서 심방을 준비하며 받는 성도들의 정성과 방법과 내용과 심방에서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다고 본다.

(3)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 사를 심방하시고 약속의 아들이사를 낳게하여 주셨다(창 21 : 1~8) :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에게 행하셨으므로 사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났으니"라고 하였다.

여기에 "권고"(돌아볼권 眷, 돌아볼고 顧)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돌아보셨다는 뜻으로 우리말 국한문 성경에는 번역하였지만 영역성경에는 원문에 더욱 가깝도록 "여호와께서 사자를 방문(심방) 하셨고" (the Lord visited Sarah-KJV) 라고 하였다. '권고'라는 말씀의 원문에는 파까드(pakad)라고 나타나 있다.

그 뜻은 심방하다, 방문하다(to visit) 가서 보다(go or come and see)는 의미이다. (82년 11월 총회지23페이지 4번을 참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 사자를 심방하시고 먼저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이다. 이와같은 하나님의 심방은 수없이 많으나 이상과 같은 세가지만을 소개한다.

## 2. 예수님(聖子, Son)의 심방

예수님의 심방은 화육(化肉, Incarnation)사건 그 자체부터 시작이다. 예수님은 친히 말하기를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8:10)고 하셨다. 여기에서 찾는다는 말씀은 (come to seek-KJV) 분명히 이 세상을 심방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땅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개인과 가정을 심방한 사실이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중에 몇가지 만을 찾아보자.

### (1) 가버나움 동리 베드로의 집을 심방하심(마 8:14~15):

예수님은 겔헷산에서 천국의 대현장인 보훈(寶訓)의 말씀을 주신 후에 하산하시고 가버나움으로 향하시는 도중에 한 문둥이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집을 찾아 심방하시고 열병으로 신음하는 그의 장모를 긍휼히 여기시

고 고쳐주신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 저물어서 찾아온 그 동리의 수많은 병자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기도 하셨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and when Jesus was come into Peter's house)

### (2) 예수님은 마태의 직장과 가정을 심방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마 9:9~13):

예수님은 마태(본명은 레위)의 직장을 찾아 그를 부르시고 그가 청하는 그의 가정에도 심방하시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은 마태를 심방하여 그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것이었다.

### (3)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을 심방 하시고 죽은 그의 딸을 살려주셨다(막 5:21~24, 35~43):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심방하시고 죽은 그의 열 두살된 딸을 다시 살려 주셨다.

12세 소녀를 다시 살리심과 청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과(눅 7:11~17)

장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은(요 11:33~44) 예수님께서 어린 이들에게나(야이로의 딸) 젊은 청년들에게나(나인성의 청년) 어른들에게도(나사로)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 주신다. 그리고 심방의 경우도 장소도 다양하다. 집으로 혹은 방안으로 그리고 길 거리에서 또한 무덤에 까지 직접 방문하시었다. 예수님의 이같은 심방은 복음서에 충만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주 다양한 심방을 하신 것을 보게 된다. 즉 직장심방, 가정심방, 노방(거리)심방, 무덤심방, 자원심방, 요청심방, 전도심방, 소명심방, 병자심방, 각종 문제해결심방, ...등등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심방도 아주 다양하게 하도록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될 것을 보여 주신다.

## 3. 성령님(聖靈, Holy Spirit)의 심방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행 2:) 성령님은 아주 자유롭고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쳐주시고 위로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심방을 쉬지 아니하시고 하신다.

### (1)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 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찢러 놓았다(행 2:37):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선포하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의 마음을 성령님은 두드리시고 찢어서 회개케하시므로 하루에 삼천명이나 되는 대 군중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행 2:38~41).

### (2) 빌립 집사를 심방하여 인도하신 성령님(행 8:26, 29):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 중에 스데 반집사의 순교사건이 있었고 이 환란을 피하여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빌립집사도 사마리아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성령께서 빌립더러 예루살렘에서 예베드리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교를 맡은 권세가진 자인 내시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깨우쳐주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결국 내시를 개종케 하고 수세토록 하였던 것이다.

### (3) 사도 베드로를 심방하여 그를 이방인 고넬료가정으로 보내신 성령님(행 10:19~48).

이번에는 철저한 민족주의적인 사고에만 집착이 되어있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찾아 오시어 그에게 환상으로 혹은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가이사라 주둔군 로마군대의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으로 보내시어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므로 복음의 우주화 내지는 만민화를 제행토록 하시었다(막 16: 15).

(4) 사도 바울을 심방하시어 복음을 아시아에서 구라파(마게도나) 지역으로 전파 하도록 하신 성령님(행 16: 6~40)

사도 바울은 본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었다(행 9: 15). 때문에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제2차 선교여행을 다시 소아시아지방으로 가서 제1차 선교여행시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권고하였다. 이때 성령님은 바울을 향하여 소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여 주시면서(행 16: 9)까지 유럽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지시하시었다. 바울은 성령님의 권고(심방)를 따라 마게도나지경 첫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행 16: 15, 34).

이상에서 보는데로 성령님의 전도자들에게 대한 심방과 지시는 성공적인 선교(전도)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시어(심방하시어) 내재(內在)하시면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다(요 14: 17, 엡 1: 13).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조심케하거나(엡 4: 30) 계역하게거나(마 12: 32) 소멸하게거나(살전 5: 19) 거스리게거나(행 7: 51) 시험하게거나(행 5: 9) 꾀망하게거나(막 3: 29) 속이게거나(행 5: 3) 욕되게 한다는 것은(히 10: 29)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심방에 대한 거부 행위로

우리 개개인의 심령을 찾아 심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받아 드리지 않는 행동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령님께서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계 3: 20).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하여 주시고(고전12: 3) 가르쳐 주시고(요 14: 26, 요일 2: 27하) 감동케하여 주시고(행 21: 4) 도와주시고(롬 8: 26~27)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16: 13) 위로하여 주시고(요 14: 6 보혜사란 뜻은 위로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롬 8: 9)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여주신다(롬 8: 15~16, 갈 4: 6).

이와같은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께서 개개인의 심령을 심방(방문)하시어 주시는 은혜요 역사인것이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엡 5: 18)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의 심방에 대한 전적인 영접과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본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강한 명령형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문을 넓게 열고 강력한 성령님의 찾아오실과 심방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환영하여 모시드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성령충만의 삶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상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방에 대하여 대략 살펴 보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심방이 없고서는 인류 구원사역이 완결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심방의 중요성을 우리는 재인식 하여야겠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목회적인 심방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에서의 당산의 사역자들(교역자들)을 통하여 양떼들을 심방케 하신다. 이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

하여 주셨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使臣)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감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 20)고 하였다. 바울사도는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심방이요, (권면이란 말뜻은 심방을 뜻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심방이라고 말하였다(고후 6: 1참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딤후 4: 13)고 하였다. 여기에서 읽는 것은 물론 성경연구와 폭넓은 학문연구이며겠고, 권하는 것은 심방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육을 말한다. 이 교육은 목회 전반에서 실시 되는 것이다. 하여간 심방하는 것, 즉 권하는 일에 착념하라고 하였다.

현대 교회는 어딘지 모르게 심방하는 일에 대한 열심이 점차 식어져가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심방 무용론?을 은근히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목회자 자신의 신학적인 문제와 목회관과 시대적인 여건과 상황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이같은 문제에 대하여서는 뒤에 가서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문제는 오늘 우리가 목회자(교역자)이든 일반 신도이든간에 심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심방의 필요성과 은혜성과 축복성과 하나님의 성지성(聖志性)을 깨달아야겠다고 본다.

다음에는 성경적인 심방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 양육하시는 은혜



윤 용 규 장로

(장년부부지도)

작년 2월에 교회성장을 위한 교역자세미나가 본교회 총회기도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의 긴 안목의 차원에서 가졌던 미래지향적 청사진이요 직접적으로는 새 성전에 이사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교역자 훈련이었다.

그때에 영락교회 박 조준 목사님께서도 강사로 오셔서 “하나님이 성장케하시는 교회” (고전 3: 5~9)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다.

강의가 끝난후 모두는 공감된 공통점을 찾아 보려고 격의 없는 질문들이 여러 차례 오가는 자못 진지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질문이 뜸해지고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했더니 누군가 큰 소리로 “목사님!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 비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었다. 모두는 한바탕 웃어댔다. 왜 그렇게 웃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너무나 보편적이고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런데 그때 박목사님의 답변하시던 말씀은 여러 사람의 마음 속에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머물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글쎄요, 단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실례를 한가지 들어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사실 그대로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인들도 나 박목사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역자와 교인 사이의 관계인 줄 압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다섯 식구를 가진 한 가정에 있습니다. 아주 잘 믿는 가정이지요. 그런데 이 가정

은 온 가족이 같은 예배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간따라 식구마다 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5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큰 딸은 1부 예배에, 작은 딸은 2부, 아들은 3부, 어머니는 4부, 아버지는 5부 이렇게 일부러 나누어서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다름이 아니고 설교하는 시간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려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박목사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와같이 한지가 벌써 아주 오래입니다. 그 뿐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 성장과 그 양육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혹 몸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혹 마음상하는 일은 없는지 두루 살펴 보고 외서는 서로 보고를 하면서 혹시나 잘못된 기미가 보이면 집중적으로 합심기도를 하곤 한답니다.

이렇게 하는 가정이 비단 이 가정 뿐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교인 중에 많은 가정들이 그러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이관대 교인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자기들의 담임목사라고, 설교자라고, 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두 눈이 별경게 충혈되면서 이슬지는가 했더니 줄기진 눈물이 양볼에 젖는다. 순간 첫덩이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면서 모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참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교인들은 설교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



겠습니까? 내 자신 확실히 아는 것은 나도 그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내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되고 영적으로 양육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나의 온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이 외의 다른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었다.

모두는 목사님의 눈물의 답변을 들으면서 깊은 심호흡을 쓸만큼 숙연해졌다. 순간 나는 나름대로 깊은 명상에 잠겼다.

참으로 설교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랑을 수반하는 영광스러운 직무수행임을 새삼 느끼면서 오늘의 충현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잠시 생각해 본다. 중학시절의 지병인 폐병으로 인한 영향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요즘도 설교하실 때는 몇 차례씩 가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서도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실까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외치시는 얼굴에는 땀이 줄기저 흐른다.

뿐만 아니라 2부와 3부 예배시는 이미 수용능력의 한계점을 넘어 선지가 오래여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남제직들이 강단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목사님이 입으신 까운의 등 뒤가 땀으로 흥건히 젖는 것을 보게 된다. 특별히 죄악상을 책망하실 때는 불꽃같은 호령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고 사랑의 면을 말씀하실 때는 벌써 붉게 상기된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인 것을 볼 때 이 말씀과 눈물의 동시적 표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체화된 참 목자상을 찾아 본다.

당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 “설교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료를 삼고 기도의 눈물과 땀과 진액을 짜서 반죽해 가지고 성령의 불에 안락을 잘 구워서 따끈 따끈한 것으로 먹여야 된다. 설은 것가지고 먹이거나 남의 것 여기 저기서 주워 가지고 아무렇게나 먹이면 성도는 병이 든다. 따라서 엄마가 굵으면 예기도 자연히 굵는 것같이 목회자가 영적으로 굵으면 수많은 양떼도 같이 굵게 된다”고 항상 강조하신다.

이렇게 목회자의 사랑이 수반되는 땀과 눈물과 진액을 짜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자기교회의 성숙한 교인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다.

목회자와 설교!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설교와 함께 서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 자체가 복음의 선포이며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받아야 산다. 안 받으면 죽는다는 선포이며 그 자체가 오늘의 구원사건이다”라고 말하였거니와 이런 정의(定義)의 의미가 아니라도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 요구에 응하시는 하나님의 충족한 은혜를 받으며 내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한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물론 객관적인 설교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객관적인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요,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물 주고 씨 뿌리는 것은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가꾸게 하시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와 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구원사건이 일어나도록하여 점점 성숙한 교인으로 성장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은혜를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은혜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강단은 나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요 절대적이고 필요조건적 관계임을 알 때 우리는 교회생활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 1: 2~3) 양육이란 출산해서 보살피며 길러 주시는 은혜이다.

그런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말씀은 나를 낳아 주신 은혜는 흑안다 할지라도 양육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식을 탄식하시는 말씀인 줄로 안다. 사실 우리가 양육의 은혜를 모른다면 소나 나귀는 여물을 먹고 살며 우리는 고등한 식물을 먹고 산다는 것뿐이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회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 9월에 새 성전으로 이사할 준비들을 서둘고있다. 여기서 우리는 막연하게 큰 성전으로 이사한다는 피상적인 생각보다는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겠고 각종 훈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교인으로서 새 성전에 나가서는 성장한 교회에서 더욱 충성된 성도의 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의 자세가 우선해야 하겠다.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Hail to the Brightness of zion's Glad Morning)

(새 545, 합 549)



김 창 군 목사

(예배위원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던 이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1832년 미국 각 교회를 휩쓸고 있던 부흥의 불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분부하심을 받들어 이민족(異民族) 구원을 위한 선교운동으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향하여 동서남북으로 힘차게 퍼져나갔다.

복음의 발길이 이르는 곳마다 이 찬송이 불려졌으며 그러는 동안에 이 찬송은 세계의 찬송이 되고 말았다. 이 찬송의 작시자 토마스 헤이스팅스(Thomas Hastings) 박사는 음악인으로서 전 생애를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바친 사람이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의 궁극적 목적은 「좁디 많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데 있다」고 말했다.

1784년 콘네티컷주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헤이스팅스는 정식 교육을 받은 것이라곤 시골 소학교 뿐이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부르고 음악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독학으로 음악공부를 하였다. 18세에 그의 가족이 나가는 교회의 성가대를 지휘하기 시작했고 22세 이후는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인으로 성장했다.

그는 600편 이상의 많은 찬송시와 1,000편 이상의 찬송곡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1858년 뉴욕시립대학에서는 그에게 음악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가대 연습에 임했고(지휘), 작품을 편찬했고, 작곡을 하였다'라고 고백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어두웠던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치고 죄의 종되었던 인생들이 죄의사슬, 사탄의 결박을 끊고, 주께로 돌아오는 광경을 노래

하고 있다. 마치 100여년전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100년이 지난 지금 찬송이 하늘에 사무쳐는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돌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향해 험갯 외치자. 죄악이 가득한 이땅위에, 전쟁으로 인해 피로 얼룩져있는 참혹한 싸움터 위에, 아적도 전쟁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는 이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위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시온의 밝은 햇빛이 비추일때까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땅끝까지 합있게」 복음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 이 찬송은 작시자 헤이스팅스의 친구인 로웰·메이슨 박사(Dr. Lowell Mason)가 작곡하였다.



## 아혼아흠 마리의 양을 이끌고 왔을지라도

김 영 길

(직장청소년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백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혼아흠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없는 의인 아혼아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눅 15: 3~7)

여러마리의 양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한마리의 양을 실족케 하거나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주인은 그 잃어버린 한마리로 인하여 무척이나 슬퍼하실 것이다.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봉사활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나 빼먹하여 잘못되어져가는 현실 생활 속에서 오직 나만이 청렴결백한 것처럼 착각하고 선불리 과오를 저지르고 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절규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나”가 아닌 “너”에게 한 소리라고 얼마나 우리는 우겨댔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모르는 무리들이 쓴 약은 몸에 받지않아 단 약만 먹이

는 잘못된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다.

처음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것도 같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결국 그러한 사회에 동화되었고 나역시 사울처럼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는 부인하지만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문밖에서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 거지며, 불구자며, 노인네며 방황하는 그들을 주를 믿지 않기에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외면해 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도 나만은 최선을 다했노라 하는 사람들, 한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라는 교훈이다.

우리가 한 생명에게 전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그에게 내려지는 상급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였지만 막 자라나는 어린 심령, 나아가서는 밝고 맑기만한 저들을, 우리의 대명세를 실천하기 위해 꺾어버렸던 우리들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

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렘 14: 14~17)

더이상 해석도 주석도 필요없는 주님의 탄식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기에 설레설레 고개를 흔드는 인생들을 보라. 아직도 우리는 자신들을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여 주님의 뜻을 참으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다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는 결코 그러한 부류에 들지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하여 의인 아혼아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자.



# 도서실 이용을 생활화 하자



이 대 길

(충현 도서관 사서)

“신앙과 문화유산의 계승”이라는 목표 아래 본 도서관은 1973년 9월 18일에 개관되어 이제 설립 10주년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동안 본 도서관의 발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도서관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본 도서관은 1973년 설립 당시에는 성경연구원과 함께 당회 직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76년 초대 도서관장에 정 관일 목사가 취임함과 동시에 충현도서관과 성경연구원이 분리되었다.

그 동안 6차례의 도서관장과 독후감 발표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고취시켜 왔으며 처음 900여권으로 출발한 장서도 지금 5,000여권(동서4,000, 양서 1,000권)에 이르렀으며 열람자 총수는 약 52,100여명에 이르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되었다. 서가는 개라식으로 운영하고 30석의 열람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 도서관의 열람자격은 본교회 남·녀교인으로서 중등부이상 연령에 준한 자라야 한다.

도서 열람시간은 주일엔 오전 9시부터 저녁 예배 시작 30분전 까지이며, 평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또한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이며 도서대출은 교역자 1회 2책, 교사는 1회 1책에 한하며, 기간은 1주일로 정한 규칙 속에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면을 통하여 본도서관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대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이며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요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 물의 없이 적응하기를 바라는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많은 정보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축적된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 축적된 정보가 도서이고 그 정보를 얻는 방법

은 독서이며, 이 정보의 보고가 곧 도서관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이 단지 공간적인 역할만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의 모든 시설이 전산화되어 일상생활과 전문분야에 걸쳐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세기 후반 정보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서관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본 도서관에서는 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포괄적이고 체계있는 도서구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저정도서 및 비도서(시청각교재 및 사료)의 폭넓은 확보로 성도들의 질적 향상을 꾀할 뿐 아니라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본교회의 자료실 운영과 함께 도서관은 모든 기관과 협력하여 성도들에게 가장 빨리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도서관은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걸친 카운셀러가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다.





## 해외선교지 ·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 ○애굽—이 준교 선교사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선교전시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앨범에 끼워 귀중한 소식을 담은 사진들을 보내주시다. 카이로 한인교회와 동산토건 현장예배인도, 애굽의 복음주의 교회들에 나가서 복음증거하시는 사역, 그곳 교회 지도자들과의 교류와 같은 계속적인 사역도 은혜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 거류민회 및 주재 상사연석회의의 카이로 한국학교와의 유대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연말 총영사관 주최 연말 리셉션에 참석하여 친교를 나누시다. 새로운 선교의 길들이 개척되고 있는데 살펴보면,

① 카이로 변두리 지역에 있는 맹인 소녀원을 방문코 성탄구제금을 전달,

② 바라지 교회의 탁아원을 위해서도 성탄구제금을 전달,

③ 카이로 시내 아인샴스 복음주의 교회 주일 낮예배 설교, 샤라비아 복음주의 교회 주일 낮예배 설교 및 성탄식 거행, 기자 복음주의 교회 주일 저녁예배, 설교, 마디 침례교회 주일 저녁예배 설교 및 한국 교회와 선교에 대한 소개,

④ 파용 복음주의 교회 사무엘 목사,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사무엘 목사의 내방 및 교제, 헬단교회 이브라힘 목사와는 수단 교회지도자 수양회에 관하여 협의,

⑤ 애굽 성서 공회 및 애굽 복음주의 교단 총무 사무실을 방문 1983년도 달력을 전달하고 지교회 지

원금을 전달.

⑥ 11월에 복부 수술을 받은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화일 아이즈 박사를 방문하고 치료비도 전달.

⑦ 카이로 한국 부인회 간부들을 안내, 애굽 고아원 파올라홀 소녀원을 방문하여 의류와 금일봉을 전달.

무엇보다도 충현성도님들의 성탄 및 신년 축하 선물과 소식에 특별한 감사와 문안의 소식을 전해오시다.

(기도 제목)

① 한인교회 및 한인사회의 부흥과 발전.

② 애굽 선교와 수단 교회위해.

③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 ○일본—유병세 평신도선교사

지난 12월초에 사위 유재영씨(유서규 집사 남편)께서 현지를 방문하여 가정예배와 히로이즈미 교회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회포를 나누심을 감사.

① 이윤호 권사님 히로오 교회 부인 성경반 인도 순조롭게 진행.

② 모교회의 성탄 선물을 받고 교회에서 교우들을 대접하며 함께 나누심.

③ 일본인 미야지마 목사 사회, 마기 선교사 설교 초청하여 결신자 및 중환자를 중심한 예배를 성탄 축하예배와 병행하여 드림.

④ 히로오 교회에서 선교사님 사회로 생크 선교사(대광 교회) 설교로 성탄 예배드리며 천야양의 세례식과 성탄식 거행하고 모교회 성탄 선물을 분배함.

이날 설교하러 가다가 굴속에서 위태한 상황속에서 교통사고 날뻔했으나 접촉사고에 그치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 전해오심.

⑤ 신년 일본 교단 교회 부흥회에 이 권사님 1박2일 참석코 "예수님과 만남"간증하여 일본인 청년 2명 즉석 결신 하나님께 영광돌리시고 기쁨의 소식 전해오심.

⑥ 선교사님께서 1월26일 삿포로 학술회의에 참석하셨는데 권사님이 대신 설교하심.

병원전도, 마음의 등대 전도지 전도, 입원환자, 외래환자 전도 수시 실시하심.

(기도 제목)

① 진리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의 새해 되시기를 간구하신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과 사역의 행동위해 성령충만을.

② 본국의 가족들 위한 기도.

###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연말행사들을 마치고 외국인 등록 제 연장수속을 무사히 마치심. 또한 지난 일년동안의 전 선교사역을 종합적으로 요약 평가보고 해주시고 30개에 이르는 개척교회 성과



를 알리는 장문의 보고서를 주심, 새해 선교 사업 예산 및 중요 사업 계획도 전해오심.

주요한 사역과 개요를 살펴보면

① 정국안정위한 간담회에 선교사 대표로 참석하셨고(5월),

② 성경수입금지가 강화되어 1975년 부터 한국 성서공회가 인쇄한 인도네시아 신약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다가 1979년부터 금지되었는데 이번엔 함께 시작한 한글성경 수입까지 금지되어 관계당국과 교섭중이나 어려운 것 같다. 점차 경색되어 가는 선교상황을 위해 기도를 특별히 부탁하심.

③ 현지 사역자를 위한 세미나가 김의환 목사를 모시고 총선거로 집회자체가 어려운 가운데도 사역자 72명, 400여명의 평신도가 참석하여 대성황리에 은혜중 마침(4월2,3일).

④ 갈룽공화산 폭발로 인한 이재민을 위해 1866점의 구호품 전달.

⑤ 총선거는 집권당 직능그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가운데 마침.

⑥ 새 할렐루야 종합선교관 대지구입금 마련코 후보지 물색.

⑦ 세계공통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영어, 화란어, 한국어 교회 연합성례식 임마누엘 교회당에서 거행하였는데 인도네시아어로 선교사님께서 설교 담

당하시고 한인성가대가 성가를 불러 큰 은혜 나눔.

⑧ 사역지 자립. 제7번 뿌차왕이 교회. 1978년 4월에 시작되었는데 6월30일 완전 자립시에는 장년92명, 어린이 72명 출석하며 예배당, 사택, 우물 및 수도 시설까지 마쳤음. 파사디나 청년회원의 동역과 정성의 기도를 감사하심.

⑨ 새사역지, 제7번 자립 및 천탄 지역 대신 바조물요 지역 대체로 새로운 사역자를 파송.

⑩ 건축비 지원. 위노저르도 교회 제2차분 및 수디모로 교회 제1차분.

⑪ 30개 오지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 지난 1년간 장년 239명, 어린이 157명이 결신하고, 43명이 세례를 받았음. 이와함께 신학생 1명과 2개의 기도처, 예배당 건축등의 결실을 보고있음.

#### (기도 제목)

① 악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 교형편의 개선.

② 선교사님 부부와 선교 사역자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형통하심.

③ 한인교회와 선교지원 교회 및 개인들의 안정과 부흥 및 발전.

선교사역의 노고와 고독속에 성화달력을 인수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감동 의 소식 전해오심. 한인교회 선교활동 계획서, 사업에 산안을 상세히 적어 보내주셨음. 또한 성탄축하예배의 성가연주 녹음 테이프와 주보를 함께 보내주셨고 사전도 접수하였음. 본부에서 탁송한 성찬기, 세례기를 사용하여 신년 첫주일에 성찬 세례식 및 학습식도 거행함. 성찬기가 도착하는 날 아기가 태어나 더욱 기뻐함.

① 교민 연발 모임에 150명 가량의 교민과 가정이 참석하여 은혜중 예배와 친교.

② 평신도 성경학교를 서독주재 장재영 선교사, 율희원 선교사와 함께 양국간 국경지역에 12월5일 개교, 공동으로 강의 담당키로 함. 성경학교로 인가 받을 계획임.

③ 성탄축하 예배, 공동의회 및 안수 집사 1명 투표하고(유철환씨), 성경공부도 확대하고 영어만 아는 어린이 성경공부도 계획중이며 신학 교육도 열심히는 천국일군지망 청년에게 지도할 계획임.

④ 선교차량은 포니를 구입할 계획임.

#### (기도 제목)

### ○벨기에—김성완 선교사

① 자체 성경 주시고, 선교지역 및 대상을 확장하며 집회시 마다 은

최근 중공의 정확한 인구가 밝혀졌다. 중공이 지난 7월1일 0시를 기해 중공사상 최초로 컴퓨터를 동원해서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 중공의 총인구는 10억3천백8십8만2천5백11명(해외거주 화교 제외)으로 집계되었다.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총인구 1,031,882,511명

남자 519,433,369명(51.5%)

여자 488,741,919명(48.5%)

한족 936,703,824명(93.3%)

소수민족 67,233,254명(6.7%)

인구 100만 이상의 소수민족 15

개

#### □해외선교자료

### 중공 인구 10억3천만

※이 통계는 중공 국무원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내용으로 보안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일정치 않음.

#### · 교육정도

대학 졸업 4,414,495명

대학 재학 1,602,474명

고교 졸업 66,478,028명

중학교 졸업 178,277,140명

국민교 졸업 155,160,310명

※10만명중 대학이상 교육자599명  
고교 6,622명, 중학 17,758명, 국민교, 35,377명, 문맹 235,820,002명(23.5%)

· 1981년 출생률 20.91%

1981년 사망률 6.36%

자연증가율 14.55%

1981년 출생수 20,689,704명

1981년 사망수 6,290,103명

1981년 인구증가수 14,399,601명



해 넘치게 하옵시고,

② 선교사님 및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도록,

③ 성경공부 향상, 확장, 불가능 넘어서서 선교하며 선교위한 훈련 성공하도록,

④ 하나님 사업, 하나님께 지혜받아 하실수 있도록하며,

⑤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천국일군 좋은 지도자 양성토록!

## ○칠레—유재일 선교사

칠레 장로교 총회장 베르가라 목사를 방문코 83년도 선교전락을 협의하고 교제의 문안, 한인교회 수집 위문품을 칠레 제1 고아원 및 극빈자 15명에게 전달, 성탄절엔 칠레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성대히 거행, 연극, 개근자, 모범자 및 모범교사 표창, 한인교회 제직 임명, 82년도 선교비 지출 내용도 알려주시고 새해 준비하심.

① 칠레 어린이 주일학교 부흥중인데 찬송가 및 성경의 발간과 보급위해 기도 중이심.

② 1월2일 한인교회 제4주년 기념 예배 은혜중 거행하고 김영택, 최인호 두분 장로로 피택함.

③ 한인교회 교사수련회, 중고등

부 학생수련회 인도하심.

④ 1월27일 칠레 장로교총회 참석할 보고자료 준비에 분망하심.

###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과 범사의 형통.

② 칠레 원주민 선교의 확장과 어린이 주일학교의 부흥과 발전 및 찬송가 출판과 성경의 성공적 보급위해.

③ 칠레 장로교 총회와의 선교사역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더욱 발전과 커다란 열매위해.

##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교회의 주보와 함께 신앙월력 및 성탄 선물 접수 감사의 문안주심. 한인교회는 제직임명, 구역권찰임명, 교사 및 성가대원 임명, 예산수립 및 통과등 안정된 속에 한인유치원 제2회 졸업생을 내고 안수집사 8명의 임직식도 가지심.

① 한국대사배 제1회 배구대회 우승.

② 아순시온 시내 한인교역자 회의가 본교회에서 회집하셨다는 소식.

③ 한국대사의 연말간담회에 초대받으심.

### (기도 제목)

① 사도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및 자녀교육 위해.

② 교포사회의 복음화와 한인교회의 안정과 부흥위해.

③ 3개처에서 10개처로 늘어날 원주민 선교의 확장 및 발전위해.

④ 교회 증축 및 교육사업의 체계확립 위해.

## ○아르헨티나—백성룡 선교사

성탄절 문안소식과 함께 박대종 강도사(전 후암교회 전도사)의 부목 청빙 및 서리집사 임명, 예산화정 내용을 주심. 성탄카드 보내주신 총현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문안도 보내오심.

###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과 가정 및 자녀교육의 형통위해.

② 한인교회의 안정과 부흥 및 발전위해.

## ○인도—엘리야 겔간 선교사

이 책은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의 글들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인생의 태어남으로의 시작에서 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이 겪는 온갖 행복,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비애에서 승리를 예기했다. 또한 누구나 한 인생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와 참다운 성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고달픈 현실에서 어떻게 현명한 지혜를 터득하고 현실을 참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다.

아름답고 기쁨에 넘친 어린시절, 희

### □신간안내

필리스 호브 편저·권명달 옮김

## 위대한 인생예찬

보이스사 발행·크라운판 384페이지  
·값 5,000원

망과 정열에 불타는 청년기의 멋있는 계절, 성숙한 인생으로서 끝없는 성취감에 잠겨 인류의 위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성숙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온 지혜와 현명으로 가득찬 황혼기의 인생을 다뤘었다.

이 책은 인생을 예찬하는 책이다. 오늘날의 세계를 선도하는 위대한 신앙인들과 사상가들에서, 인류가 남긴 지언, 작가들에게서 600여 명언을 간추린 것이다. 이들이 남긴 인생에 대한 예지의 위대한 기쁨을 받아 간직하기 바란다.



충현지에 실린 인도소식들을 듣고 카길지역을 알리는 선교지 보고소식을 번역하도록 보내주심, 특별히 다질링의 연례 선교사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14세에 철도 자살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찾던 중 예수님을 만난 선다 싱의 이야기와 대조시켜 명상하면서 영혼의 구원이 귀중함과 함께 영육간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불신 인간의 모습에 충격받은 느낌들을 전해오심, 또한 자신의 결혼이라는 새로운 사실들을 위시해서 선교사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 많았던 82년 한해를 회고하면서 카길에 영구적인 선교지도처 및 사역자를 세울 수 있었던 일, 이를 위해 힘써 동역한 회교사제로서 개종한 아론 말리크, 미국인 성경번역 여자선교사 칼라·레드럴, 짐 랜던 미국인 전기기술자들에게 감사드리는 심정 및 지방정부 지도자의 개종이란 큰 열매, 또한 45명 어린이 학교에서 사모님과 칼라양이 교사로 일하시게 된 일, 파르카치에서 세계 선명회의 도움으로 수직 솔 제도공장을 세우고, 농촌지역을 위해 뚝과 제방을 쌓아 농토를 보호하고 넓혀준 일들을 써주셨다. 싱가포르의 태드·웰즈씨의 유익한 방문과 언어학 및 카세트 녹음기술의 전수와 교육을 기억하며, 티베트 기독교인 동맹의 연례총회가 스리나가르에서 열려 전 '카길 회복' 사역자 일동이 참석했던 일과 함께 새해에 선명회 주최 기독교 사역자 총회의 총무로 샘·캠리스 박사 및 짐·보스트 신부를 강사로 모시고 7월4일부터 8일까지 갖게 된 일을 준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써보내오셨다. 무엇보다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충현 모든 성도님과 특히 충현세계선교회에 문안을 드리며,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부부와 가족의 영

육간의 강건과 성령충만하신 은혜 위해,

② 선교사역과 선교대회의 성공적 전진과 알찬 풍성한 열매를 위해,

## ○서독—육호기 선교사

지난 여름해 동안 수고해 오신 4개의 개척교회의 소식과 경과를 녹음테이프에 자상히 실려 보내주시고 유익한 사진들을 함께 보내주셨다(사진은 전시중임). 바쁘신 가운데도 영국 선교지 개척을 위해 소식을 알아보시는 등 분주하시다. 새교회가 정국 불안정으로 연합에배대신 개별 절기예배를 드렸으나 부흥된 관계로 흐뭇한 2부순서로 즐거워 함. 또한 성찬·세례 학습식을 각각 가지고 연합과 성탄절 예배도 드림. 무엇보다는 사모님께서 지난 10월25일 순산 득남하셨으나 3일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서 육중한이란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우고 장례함. 산후회 복으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제는 건강해지심. 안부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① 한인교회의 부흥과 독일인 및 미국인 선교에 크신 부흥의 역사일어나도록,

②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영육간의 성령의 충만위해.

## ○나성 충현교회

할렐루야! 지난 11월21일 충현교회 나성 지교회가 30명의 성도와 함께 창립예배를 드린다. 김성주 집사님께서 김영희 목사의 설교로 드리고 이제는 나성 YMCA에 장소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연말까지 100명, 83년도에는 300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힘쓰고 있다. 11월14일

교회 추진 설립 및 운영위원을 선출, 총무, 서기 담당위원으로 신동수 집사, 회계·재무 담당위원으로 김성주 집사, 홍보·섭리 담당위원으로 지금섭 집사를 선출하여 임시당회와 제직회 전환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함. 30만 교포, 800여개의 교회가 있지만 참되고 뜻있는 교회가 많지 못하는데 순수한·보수·합동교회로 1)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 2) 한마음 품는 교회, 3) 서로 사랑으로 돕는 교회를 목표를 전진하고 이미 100여명이 모이고 있다. 주정부에 교회등록을 마치고 담임교역자로 정상우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출국수속을 밟고 있는 중임.

주소는 "나성 충현 교회 COUNCIL 회의장, 1553 N. Hudson Ave, Holly Wood, California 90028, C/O, Y. M. C. A. "임. 정식 명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나성 충현교회 (Chung Hyeon Presbyterian Church of Los Angeles)이며 12월22일자로 비영리 법인단체 허가(제1165309호)를 받음. 운영위원회장 직무는 윤형철, 김영희 두분 첫주일에 갖고 새해 예산과 '82년도 결산서를 통고함.

(기도 제목)

① 나성 충현교회의 부흥과 안정발전 및 보수 합동측 교회의 지도적인 교회로의 성장.

② 운영위원회 임원 및 전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화합협력 및 범사에 형통하고 부흥되는 축복을 위해.

③ 담임교역자로 파송되실 정상우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출국수속의 원활한 진행 위해.

## 찬 조 금

양현승(제미)씨 미화 55달러  
※정해수(재사우디쌍용근무)씨 경유



## 교회소식



### 심령부흥회 개최

3월 특별 건축헌금 작정주일을 앞  
에 놓고 심령부흥회를 개최한다. 오  
는 28일 부터 3월4일 새벽 까지 매  
일 저녁부흥회 오후7시, 새벽기도회  
5시30분, 낮공부 10시 등으로 배풀  
어지는데 강사는 이호문 목사(인천  
송의교회 시무)가 담당한다.

### 농어촌평신도 초청수련회

본교회 전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  
11회 농어촌평신도초청 수련회가 오  
는 7월7일부터 11일 까지 4박5일  
동안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전국  
에 흩어져있는 농어촌교회의 평신  
도 지도자 200명이 참석하게 될 이  
번 수련회의 강사는 다음과 같다.

김창근 목사: 제직론  
최봉호 목사: 교사론  
김원남 목사: 심방론  
이암우 목사: 개인전도  
박동실 목사: 특수전도  
오치용 목사: 선교적 사명  
장정일, 허충욱 목사: 성경강해  
남성호 목사: 심령부흥회

### 선교자료실 설치운영

충현세계선교회는 선교자료실을  
새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도  
교역자로는 오치용 목사, 유국남 목  
사 그리고 책임지도에 박용삼 집사  
가 맡아 선교회와 선교부주일학교  
가 수용하고 있는 모든 선교자료실  
수집, 분류, 정리하여 선교교육과  
선교집회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  
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초 본교회 서관3층 자료  
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동 선교자료  
실의 활동내용은 모든 선교에 관한  
문서, 책자, 잡지,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등 선교지  
및 선교기관에서 보내온 풍물, 현지  
자료를 보관하였다가 선교지별로 정  
보서비스, 선교주제별로 연구위원  
을 선정, 예산을 책정함으로 선교  
정책과 전략을 수립 실천해 나가  
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영아부 지도자 수련회

전국 영아부 지도자 및 교사 수  
련회가 지난 14일 부터 15일 까지  
"대답없는 교육이 가능한가" 주제로  
개최되었다. 약 250명이 참석한 이  
번 수련회의 강사는 본교회 정소영  
전도사가 수고했다.

## □인사이동

### 예배위원회

#### ① 임 명

제1성가대 김석향 소프라노  
제1성가대 여정숙 앨토

### 2. 교육위원회

#### ① 임 명

고등부 김정화(여) 정교사  
박영자(여) 임시교사  
홍부식(남) 정교사  
구희자(여) 정교사

선교부 오형국(남) 정교사

중등부 김동기(남) 임시교사  
허 주(여) 임시교사  
부정순(여) 임시교사

## 각종 통계

1983. 1. 2(매월 첫주 기준)

| 구분  | 남       | 여     | 계     | 총 세대수 |        |
|-----|---------|-------|-------|-------|--------|
|     |         |       |       |       |        |
| 예   | I부      | 170   | 255   | 425   | 4,304  |
|     | II부     | 311   | 1,012 | 1,323 |        |
|     | III부    | 402   | 781   | 1,183 |        |
|     | IV부     | 208   | 524   | 732   |        |
|     | V부      | 272   | 579   | 851   |        |
| 매   | 주 일 저녁  | 211   | 422   | 633   | 4,324  |
|     | 삼 일 저녁  | 198   | 473   | 671   |        |
| 주 일 | 어린이새신자부 | 24    | 15    | 39    | 10,402 |
|     | 영 아 부   | 226   | 199   | 425   |        |
|     | 유 치 부   | 160   | 166   | 326   |        |
|     | 유 년 부   | 192   | 202   | 394   |        |
|     | 초 등 부   | 219   | 201   | 420   |        |
|     | 중 등 부   | 180   | 171   | 351   |        |
|     | 고 등 부   | 110   | 139   | 249   |        |
|     | 대 학 부   | 65    | 87    | 152   |        |
|     | 청 년 부   | 84    | 109   | 193   |        |
|     | 장년새신자부  | 39    | 84    | 123   |        |
|     | 세 레 부   | 26    | 62    | 88    |        |
|     | 장 년 부   | 31    | 291   | 322   |        |
| 교   | 소 망 부   | 50    | 120   | 170   | 709    |
|     | 직장청소년부  | 24    | 92    | 116   |        |
|     | 선 교 부   |       |       |       |        |
|     | 새 가 경 부 | 40    | 48    | 88    |        |
|     | 합 계     | 3,242 | 6,032 | 9,274 |        |
| 신   | 교 인     |       |       |       | 1,071  |
|     | 총 수     |       |       |       |        |
|     | 남       |       |       |       |        |
|     | 여       |       |       |       |        |
| 세   | 레       |       |       |       | 1,056  |
|     | 남       |       |       |       |        |
|     | 여       |       |       |       |        |
|     | 계       |       |       |       |        |
| 입   | 교       |       |       |       | 1,357  |
|     | 남       |       |       |       |        |
|     | 여       |       |       |       |        |
|     | 계       |       |       |       |        |
| 원   | 입       |       |       |       | 2,413  |
|     | 남       |       |       |       |        |
|     | 여       |       |       |       |        |
|     | 계       |       |       |       |        |





#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 24, 25)

- 정유순양(채종순권할말) 1월 18일
- 손금찬군(홍익구역 심인숙집사 아들) 1월 22일
- 최우진군(한신9구역) 1월 25일
- 김순희양(광장구역 김주원씨 임선비집사 딸) 1월 26일
- 신동애양(등촌구역 남궁규원권사 딸) 1월 28일

## 1월의 새교우

### ● 1지구

웅담 구역 이의환  
장미 1구역 백준섭  
답십리3구역 정귀석  
장안 1구역 장석준  
행당 3구역 임봉열  
태평 구역 최광년  
태평 구역 김인성  
단대 구역 최순직  
중화 구역 오세길  
사근 구역 고수준  
성수2-1구역 박계봉  
옥수 1구역 김재근  
행당 1구역 김종금  
성남 1구역 홍정호  
장미1-1구역 서기순  
행당 1구역 신명신  
세곡 구역 오영숙  
홍익 1구역 이웅삼  
공능 구역 서병철  
태평 구역 나미순  
웅대 구역 이정철  
시영 2구역 이윤희  
망우 3구역 김명수  
명목4-2구역 김두애  
하왕 1구역 이규종  
답십리3구역 이상관  
행당 3구역 오형식  
행당 1구역 신명신  
마장 구역 최점순  
답십리3구역 김민호  
모진 구역 권두언  
태평 구역 손영태

쌍문 4구역 옥치남  
신당3-2구역 윤석순  
미아 6구역 우희명  
광희2-2구역 김천규  
동선2-3구역 이영종  
광희2-2구역 이상호  
신당3-1구역 김재승  
광희1-1구역 오상수  
광희2-1구역 박기천  
미아 4구역 유윤진  
미아 4구역 이태순  
쌍문 2구역 양국화

### ● 3지구

현대 구역 신광식  
고양 구역 이춘우  
송인1-3지역 김병삼  
장충 8구역 천기화  
삼성 3구역 박상준  
영륜 2구역 정창호  
율지5-2구역 임완택  
북가좌구역 최영신  
송인 2구역 문상무  
창신3-1구역 윤성호  
장충 2구역 최낙현  
청진 구역 이용완  
동송 8구역 최형주  
한양 2구역 석종태  
장충 2구역 안영희  
장충 9구역 박충의  
현대 구역 윤일순  
청진 구역 오방호

### ● 4지구

삼성 1구역 진홍용  
신정 1구역 최종렬  
서교 2구역 임현찬  
화곡 3구역 김동균  
문래 구역 송영란  
오잠 5구역 이권찬  
신사 2구역 최영환  
충무4-1구역 홍일표  
신월 구역 권영신  
대흥 구역 김호연  
부천 3구역 김중곤  
등촌 2구역 김철순  
대흥 구역 김남숙  
대림 구역 정희영  
도곡 1구역 최낙영  
화곡 1구역 박갑출  
신길 구역 진중신

### ● 5지구

보광 1구역 이상운  
도원 1구역 2 김덕현  
철산 구역 김영건  
사당 1구역 배선희  
노랑진구역 이대준  
호계 구역 이봉주  
기타시외구역 오희순  
도화 2구역 신창호  
보광 2구역 김동식  
보광 2구역 김상균  
필동3-2구역 남윤화  
사당 2구역 정천규  
시흥 A구역 차종관  
시흥 4구역 김영남  
사당 1구역 박종민  
방배삼호구역 박호성

## 별 세

- 박상순씨(이종식집사 모친) 1월 10일
- 손일남씨(손경수집사 부친) 1월 14일
- 박병화씨(장충구역 이정옥권사 아들) 1월 17일
- 최여옥권사(화곡구역 김연균집사 모친) 1월 20일
- 김기선씨(조종원권사 시모 서초삼호구역) 1월 24일
- 오순덕권사(회현구역) 2월 2일
- 김광선씨(이문1구역 박영희씨 부군) 1월 2일

## 결 혼

- 임영구군과 김정순양(김경칠장로 이숙영집사딸) 1월 5일
- 정정식군(선교주교)과 홍현주양 1월 7일
- 강영욱양(수유구역 박동순씨 딸 중등부교사) 1월 8일
- 이광수군(권명주집사 아들)과 김재실양(김용선씨 이후덕집사 딸) 1월 13일
- 김태봉군(제일성가대원 삼선구역 김덕주집사 아들) 1월 18일

##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1,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년새신자 1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은 사람은 장년 새신자 2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시간은 각 12시로, 1부는 새신자부실에서, 2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 ● 2지구



## 2월의 행사

### ◇ 교 회

4일/정기당회  
11일/전체철야기도회  
28일~3월4일/심령부흥회

### ◇ 전도위원회

13일/남전도회 월례회  
/충현새계선교회 월례회  
/여전도회 월례회  
27일/전도위원회 월례회

### ◇ 교육위원회

~3일/어새부, 유치등부 계절학교  
14~16일/대학부 계절학교  
21~23일/유치부 계절학교  
21~24일/청년부 계절학교  
27일/교육위원회 월례회

### ◇ 심방위원회

6일/제직회  
13일/권사회 월례회  
20일/심방위원회 월례회  
27일/구역권찰회의

### ◇ 재정위원회

20일/재정위원회 월례회

### ◇ 건축위원회

27일/건축위원회 월례회

### ◇ 자산관리위원회

20일/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 ◇ 출판국

20일/출판국 월례회  
27일/월간 충현 2월호 발행

###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윤명식

편집위원/

이성근 이세열

윤영탁 안석렬

김영구 조현명

김차생 우기진

이훈 정은표

오태용 이형수

장수

1983년 2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2월호

제11권 제2호

통권 제107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3년 2월 21일 인쇄

1983년 2월 25일 발행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윤명식

주 간/김영구

편집부장/장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1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

전화/274-2171·2172

## 편집 후기

◇새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가슴은 희망에 가득차 있습니다. 이 봄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움트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새봄이기도 합니다. 한겨울 동안의 기나긴 동면을 떨쳐버리고 대자연이 소생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나태와 교만과 무지의 굴레를 벗어나 신앙의 활력을 되찾아 우리들에게 부과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교회가 이루어야 할 과제는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온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쳐나가면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너와 나의 구별없이 충성하는 이 해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참여합시다.

◇내일의 충현상을 정립하여 앞으로 우리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하는 특별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의 충현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2천년대의 충현을 미리 가 봄으로써 충현의 성도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1983년도 충현교회 교역자

위임목사 김창인



부 목 사 김원남 한영철 김창근 장정일 남성호 조준상  
최봉호 박동실 허충욱 오치용 이세철 조영길  
김수성 유국남 이양우 안석열 김영구

유학목사 윤형철 김영휘 이승근

협동목사 김희보 윤영탁 신성종 이성근

선 교 사 서만수 육호기 김태현 백성룡 이준교 김재창  
엘리아 겔 간 유재일 김성완

협동선교사 테레 파이

평신도선교사 유병세

감 도 사 김동열 이원길

여전도사 이두란 최순복 구명신 김정성 정연희 정소영  
김순옥 김연이 현정남 정복인

교육전도사 김성윤 김성주 김양래 김오용 김익경 김장근  
성주진 오태용 윤태곤 이상환 정관호 정은효  
김정순 김정자 유순화 유희섭 이성운 예전희  
장영자 정금숙 하영자 황정숙



충원교회 새성전 조감도  
BIRD'S-EYE VIEW OF CHUNGHYEONCHURCH



폐사에 하명해 주십시오  
15년의 전통과 경험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사업 종목

- ① 냉난방 및 위생 설비 시공
- ② 기계 기구 설비 시공
- ③ 상하수도 공사
- ④ 소화 설비 공사
- ⑤ 주택 건설 사업

대표이사 金 相 烈 집사  
상무이사 李 進 深 집사  
상무이사 李 成 大 집사



南洋設備株式會社

주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47-6, 천수빌딩 304호  
전화 266-4465, 2470 ● 269-2260, 2767  
● 265-2672 (자택 / 842-4353)